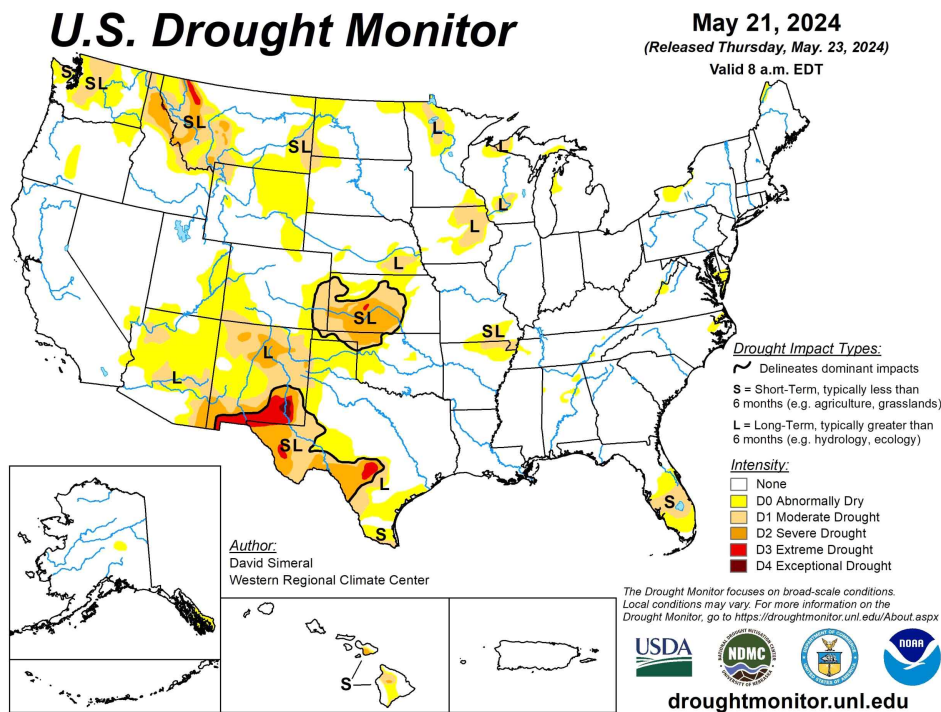




5월 2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22)

□ 미국 기후 현황(5/19-5/25)

미국 중부와 동부 전역에서 매일 뇌우가 발생하여 국지적으로 폭풍과 강풍을 일으켰다. 가장 심한 비 가운데 일부 (2~6인치)가 중서부 상부에서 이전에 가뭄 피해를 입은 구역들에 내렸고 한편 총 2~4인치의 비가 북부 평원과 중부 평원 그리고 중남부 전역에 산발적으로 내렸다. 매일 전국 어디에선가 최소 몇 건의 토네이도가 보고되었고 전국 주간 예비 집계에 따르면 150건 이상의 회오리바람이 발생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5월 21, 23, 25일에 발생했다. 불안정한 날씨가 북서부까지 확장되었는데 이곳은 나중에 평원, 중서부 그리고 중남부 전역에 활발한 날씨를 촉발한 요란의 근원지이다. 그러나 국내 남동쪽 절반 지역과 달리 북서부에 소나기가 내린 이후, 높은 고도에 내린 눈을 포함해서, 쌀쌀한 상태가 이어졌다. 그 밖에 딥사우스, 텍사스 남부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고원 남부까지 이르는 전국 남서부 사분면 대부분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캘리포니아와 남서부에서는 전형적으로 늦봄에 날씨가 건조하다. 하지만 고원 남부에서는 몇몇 방목지, 목초지 겨울 곡물들, 그리고 비에 의존하는 여름작물들이 가뭄과 관련된 영향을 지속해서 받는다. 텍사스 대부분을 포함한 미국 중남부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오대호 하부 지역과 북동부까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 F 높았다. 또한 플로리다 남부 전역에서는 더운 날씨 (평년보다 5° F 높은 수준)가 지속되었다. 한편 북서부 내륙 전역에서는, 북부 평원 일부와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평년보다 5~10° F 낮았다.



□ 농업 현황 요약(5/20-5/26)

캘리포니아 대부분, 멕시코만의 미국 연안, 남서부는 여전히 건조했으나 중서부 상부 대부분은, 아울러 미시시피 계곡, 대평원, 로키산맥 일부 지역에도, 평년 대비 최소 두 배의 주강 강수량을 기록했다. 아이오와-네브라스카 변경 근처에 있는 일부 지역들은 6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한편, 미국 동부 절반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따뜻했으며 북동부, 오하이오 계곡 그리고 텍사스 일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9° F 이상 높았다. 대조적으로 미국 서부 대부분은 평년보다 선선했다. 로키산맥의 넓은 구역들은, 아울러 대분지, 태평양 북서부 그리고 북부 평원의 일부도, 평년보다 6°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5/19-5/25)

■ 유럽:

최남단 재배 지역들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대륙 전체로 소나기와 뇌우가 확대되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서독에는 보통 내지 강한 수준이 비(10~70mm)가 다시 한 차례 내려서 겨울 작물의 품질 우려가 계속되었고 수확량 전망치가 낮아졌다. 현재까지 (3월 1일부터) 영국 남동부에서부터 프랑스 동부와 서독까지에 내린 계절 강수량(3월 1일부터)은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런 지속적으로 습한 조건들이 야외 작업에 방해가 되었고 가끔 상당한 저지대 홍수를 일으켰다. 반면에 동독에서부터 유럽 동중부와 북동부까지 소나기와 뇌우가 소곡물과 여름작물의 출현을 위해, 아울러 생식기 내지 종실비대기 겨울 작물들을 위해서도, 토양 수분을 개선했다. 더 남쪽으로 이탈리아 북부에서부터 세르비아까지 심하거나 과도하게 내린 강우 (50~100mm, 국지적으로 더 많은)가, 건조했던 4월과 5월 상반기 이후 그 습기가 다뉴브~강 계곡 전역에 걸쳐서 유익하기는 했지만, 추가 홍수를 일으켰다. 유럽 대륙의 주요 쌀 생산지인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 지역은 3월 1일 이후로 강수량이 평년의 215퍼센트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 30년 중 가장 습한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 때문에 파종 노력이 방해를 받은 것 같다. 반대로 그리스에서는, 아울러 스페인 중부와 남부에서도, 덥고 건조한 날씨가 봄 곡물의 성숙과 여름작물의 영양 성장을 가속화했다. 남쪽이 그렇게 덥기는 했지만, 관측 기간 중 최고 기온이 30° C에 육박했던 대륙의 북동부 사분면에서 이상 기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구소련(서부):

지역의 중부에서 건조함과 가뭄이 심해지기는 했지만, 5월의 그 한파는 누그러졌다. 관측 기간 동안 벨로루시, 몰도바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부 전역에서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2~5° C 높았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서부에서는 평년의 1° C 이내였으나 러시아의 불가 지방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4° C 낮았다. 따뜻해진 그 날씨가 5월의 첫째 주에 최고조에 달했던 5월의 그 추운 기간을 종식시켰는데, 이 한파기 때문에 밀 싹은 검게 탄 것처럼 되었고 표토 위로 출현한 여름작물들과 좀 더 자랐던 겨울 밀을 싹 쓸어버렸다. 한편, 드문드문 국지적으로 얼마의 폭우가 내렸음에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부터 러시아 서부까지에 이르는 대부분의 주요 농작물 지역들은 더욱 가뭄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사라토프와 로스토프 주에서 현재까지 내린 계절 강우량 (3월 1일 이후)은 각각 평년의 33 및 29 퍼센트로 미끄러져 내렸다; 이 주들은 러시아 남부 지방의 북쪽 절반에 속해 있다. 그런 급성 건조가 생식기 (북쪽) 내지 종실비대기 (남쪽) 겨울 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고 5월초 결빙 때문에 재파종해야 했던 작물 등을 포함한 여름작물의 출현에 필요한 토양을 수분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비슷한 건조함이 우크라이나 동부까지 확대되어 종실비대 중인 겨울 밀에게, 출현 중인 헤바라기는 물론이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벨로루시에서 우크라이나 중서부까지는 조건들이, 우크라이나 중부의 주요 밀 및 옥수수 지역들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분 경사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눈에 띄게 좋다.

■ 동아시아:

이 기간 내내 남중국에 있는 반쯤 정체되어 있는 전선을 따라 꾸준히 흐르고 있는 열대 습기가 남동쪽(국지적으로 200mm에 육박)에서부터 장강 계곡(25~100mm)까지 강우를 만들어내었다. 그 수분이 생식기 조생벼와 영양기 여름작물들을 위해서는 환영을 받았으나 진행 중인 유채 수확을 위해서는 시기가 좋지 않았다. 한편, 따뜻하고 건조한 더 북쪽의 날씨는 주 중반에 불안정한 날씨로 바뀌었다. 주말 내린 소나기(25mm 이상)는 성숙 중인 화북평야의 밀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했으나 북동부 성들에서는 옥수수와 대두의 활착에 도움이 되었다. 그밖에 서쪽(신장)에서는 스트레스성 더위가 없는 상태에서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것(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4° C 높음)이 면화의 발달을 촉진했고 수확량이 높았던 2020년 이후로 최고 수준에 속하는 초기 작물 조건을 유지했다. 한편 5월 1일 이후로 한반도와 일본에 지속적으로 내린 강우는 벼와 기타 여름 작물의 활착에 필요한 수분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 호주:

몇몇 고립된 소나기 (일반적으로 5 mm 미만)를 제외하면, 건조한 날씨가 밀 지대를 덮어서 최근에 심은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을 더욱 감소시켰다. 서쪽과 남쪽에서는 그런 건조한 날씨가 겨울 작물의 초기 발달에 여전히 불리하여 많은 지역에서 발아와 출현을 방해했다. 일부 농민들은 겨울 작물들의 건과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다른 농민들은 파종하기 전에 더 많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밀 지대 내 다른 곳을 보면 동쪽에서는 토양 수분이 평균적으로 정상에 가까워서 밀, 보리, 캐놀라의 초기 발달을 도왔다.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늦여름 작물의 수확에도 유리하여 면화와 수수의 수확이 활발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다. 호주 남부와 동부 전역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선선하여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1-3° C 낮았고 최고 기온은 섭씨 10도 후반과 20도 초반이었다. 서호주에서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증발 손실을 증가시켜서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1-3° C 높았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20도 중반이었다.

■ 아르헨티나:

대체로 건조하면서 평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계속해서 아르헨티나를 지배하여 계절 야외 작업을 촉진했으나 출현 중인 겨울 곡물들의 최고 영양 성장을 둔화시켰다. 그 지역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우루과이까지 확대되어,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3-5° C 낮았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곳들에서 야간 저온은 5° C 미만으로 떨어졌고 먼 북쪽인 차코까지 얼어붙었다. 아르헨티나 북동부 (엔트레리오스 북부에서부터 미시오네스까지)를 예외로 하면 - 이곳의 강수량은 총 10-50mm 였다 - 비는 광범위하면서 산발적으로 및 가볍게 내렸고 양은 대체로 총 0-5 mm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36 및 77퍼센트 수확되었고 면화는 25퍼센트 수확되었다; 밀 파종은 북부 생산 지역에서 가장 활발했다고 알려졌다고 코르도바와 엔트레리오스 일부에서 활동이 보고되었다.

■ 브라질:

소나기가 남부 농업 지역들로 확대되면서 홍수 복구 노력이 둔화되었으나 늦게 발달하는 옥수수에게 필요한 늦철의 수분을 올려주었다. 가장 큰 강우 (50mm에서 국지적으로 100mm를 초과하는)가, 그 주의 다른 곳에서는 25mm를 넘는 총량이 기록되기는 했지만, 다시 히우그란지두술의 동쪽 구역에 집중되었다. 히우그란지두술 정부에 따르면 5월 16일 현재 대두와 옥수수는 각각 91 및 92퍼센트 수확되었다; 수분으로 포화된 토양 때문에 야외 작업은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높은 습도로 인해가 건조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보통 내지 강한 수준의 비 (10-25mm, 국지적으로 50mm 초과)가 파라나를 지나 마투그로수두술의 남쪽 구역까지 북쪽으로 확대되었다; 지속적으로 습했던 히우그란지두술과 달리 최근의 건조기 이후에 내린 이 소나기들은 유익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5월 13일 현재 2기작 옥수수의 70퍼센트 이상이 생식기 내지 종실비대기였고 약 30 퍼센트가 성숙 또는 수확되었다; 한편 밀은 45 퍼센트 파종되었다. 더 북쪽으로 따뜻하면서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고 계절 강우 (양이 국지적으로 50mm에 달함)는 북동부 연안에 국한되었다. 마투그로수, 바히야 서부, 기타 주요 내륙 생산 지역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중반에 도달하면서 옥수수와 면화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다.